

“한센인과 일반인이 함께 밥 먹는 날까지 열정 바치겠다”

여수서 ‘한센인 사진전’ 여는 박성태 작가

여수에양원 평안의 집 등에서 1년여간 설득 1세대 150여명 일상 담아내...국내·외 ‘반향’

“세상과 격리된 채 외로운 삶을 살아 온 그들을 세상으로 끌어내 우리 이웃으로 공존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안의 한센인-100년만의 외출’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여수에서 사진전을 갖고 있는 박성태(47)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광주일보 기자 출신 박 작가는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수진남문에 회관에서 올해 105주년을 맞은 여수에양원 평안의 집과 도성마을 한센인 150명의 일상을 담은 사진전을 선보이고 있다.

“오랜시간 쌓인 편견과 차별의 벽이 사진 몇 장으로 하루 아침에 허물어 질 순 없었지만 일반인과 한센인 간 두터운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박 작가는 한센병에 대한 오해도 심각하다고 했다. 실제 전염이나 유전이 되지 않는 한센병은 3개월 정도 항생제를 복용하면 완치되지만 사람들의 편견은 여전히 있다. 지난해 6월 신평에양원 내 손악

은 목사 기념관을 찾았던 박 작가는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던 강수웅 장로(여수에양원교회)와 우연히 마주쳤다. 난생 처음 한센인을 마주한 그는 당시 강 장로의 일그러진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부끄러움에 애양원을 다시 찾은 그는 참회의 마음으로 1세대 한센인들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한센인들의 마음을 열기는 쉽지 않았다.

평균연령 80세인 1세대 한센인들은 남은 생애 자신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흉측하게 비칠까, 자녀들이 한센인의 자식으로 알려져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 사진촬영을 극도로 기피했다. 하지만 박 작가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선 절대적 기독과 신앙을 가진 한센인들과 1년동안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때론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 함께 지내는 등 끊임없이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설득했다. 결국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1세대 한센인들

은 마음의 문을 열고 촬영을 허락했다.

박 작가가 지난 1년동안 연출없이 자연스레 포착한 일상의 사진에는 오랜시간 세상의 편견과 차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한센인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국내 처음으로 한센인의 일상을 담은 사진전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세상과의 첫 소통을 위해 용기를 내 개관식 행사를 찾은 한센인들을 일반 관람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세상의 편견은 물론 일반인에 대한 한센인들의 오랜 경계심도 허물어지기 시작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예상밖의 뜨거운 관심으로 박 작가는 서울대와 국내 유명갤러리 전시를 위해 다음 달 초 속도를 방문, 추가 사진 작업에 들어간다.

박 작가의 사진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애인과 한센인 연대에 대해 연구 중인 미국 그리넬칼리지 마이클 길 교수 부부는 환자가 아닌 한 인간의 모습을 담은 박 작가의 사진에 반해 지난 22일 여수에 단숨에 날아왔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 사진학과 관계자도 영국내 전시회 협의를 위해 다음달 행사장을 찾는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작가의 사진전은 100년만에 이뤄진 한센인들의 상징적 외출이자 그들이 우리의



아들과 생이별한 사연을 지닌 민선식 할머니를 담은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성태 작가.

이웃이 되었다는 화해의 선언”이라며 “오랜시간 멀리 떨어져 있던 일반인과 한센인 두 세계의 마음을 잇는 다리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 작가는 앞으로 한센인 2, 3세대에 대한 촬영과 기록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나마 관심을 받았던 한센인 1세대

에 비해 상대적 소외로 말 못할 아픔을 겪어온 한센인 자녀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때문이다.

“한센인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과 청년들이 3세대를 주축으로 한 오케스트라가 다음달 창립해 한센인 인권 홍보대사로 활약합니다. 저 역시 한센인과 일반인들

이 아무렇지 않게 함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삭막한 세상에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얘기를 그려나갈 따뜻한 그의 사진이 기다려진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광주대, 지방선거 당선 동문 취임 축하연



광주대학교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김혁중 총장과 광주대 출신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4지방선거 당선 동문 취임축하연'을 가졌다. <광주대 제공>

하이트진로 10기 봉사단 발대식 가져



하이트진로(주)(대표 김인규)가 운영하는 ‘하이트진로 봉사단’은 지난 25일 광주씨엔씨이웨딩홀에서 9기 봉사단 수료식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10기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설립 모금운동 돌입

광주 고려인마을을 돕기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사)고려인마을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어린이집에서 ‘광주고려인마을 돕기 캠페인 업무 협약식’을 갖고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모금 목표액은 2억 원이다.

광주고려인마을에는 2500~3000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현재 어린이집이 입주한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건물에 매입해 활용할 계획이다. 건물을 매입하면 이곳에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쉼터·상담소를 입주시켜 종합지원센터로서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 기관들은 각기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후원자는 광주고려인마을을 지정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 된다. LG이노텍 광주공장은 협약식에서 종합지원센터 설립에 써달라며 2500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은 “광주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961-1925, 010-3644-6748.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대 김영옥 교수 ‘스승의 날’ 대통령 표창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김영옥(59·유아교육과) 교수가 최근 제3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혁신추진 TF 위원장 및 정책 연구 책임자를 맡아 유아교육 분야 누리과정의 기반이 되는 미래지향적 교육

과정 운영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또 유아교육 분야 누리과정 해설서와 지침서, 사이버 연수의 집필 및 강의에 참여한 것은 물론 유아교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 TF 위원장 및 정책연구 총괄 단장으로 공헌했다.

미국 밴더빌트 사범대에서 교육학 박



사 학위를 취득한 김 교수는 한국어교육학회 회장, 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회장, 정외대 교육문화사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교육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



박지성-김민지 결혼식 올려

고흥 출신이자 한국 축구대표팀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33)이 웨딩마치를 올렸다. 박지성은 27일 서울 광진구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김민지(29) 전 SBS 아나운서와 결혼식을 올렸다. 화제를 모은 스포츠선수-방송인 커플에게 80여 명 취재진이 결혼식장에 몰려들었으나, 삼엄한 경비 속에 결혼식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안기환 전무, 최용수 프로축구 FC서울 감독, 안정환, 전 야구선수 박찬호, 수영선수 박태환을 비롯한 스포츠계 인사와 배우 이병헌, 가수 싸이, 김창렬 등 방송계 인사가 참석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배출한 태극전사 최고의 스타이자 한국인 1호 프리미어리거인 박지성은 지난해 6월 김민지 전 아나운서와의 열애 사실을 공개해 떠들썩한 관심을 받았다. 이어 5월 현역 은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이목을 끌었다.

박지성-김민지 부부는 결혼식 후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서 영국 런던에 신집살림을 차린다. 은퇴 후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대신 스포츠 마케팅 공부를 하고 싶었던 박지성의 뜻대로 그는 런던에서 스포츠 마케팅 관련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구체적인 진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

- 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

- 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모집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 분 062-233-0468.
-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8명(8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4층 장애인활동보조인력 모집 나이, 학력, 신체조건 제약 없음 선착순 69명 접수 문의 062-416-8587.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초등학생 창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7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국제 비영리경제교육기관 JA코리아와 아산나눔재단과 '도전 미래 기업가'실시. 참가 접수는 7월 24일까지 문의 062-268-0093.
- ▲광주여성성호모닉스합창단(지휘 이준) 회원=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광주지역 거주 여성, 매주 월·목요일 오후 2~4시 광주문화예술회관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실 016-604-1918(회장), 010-4416-9883(총무).
-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는 학습클리닉'=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 ▲살레시안 가족합창단(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든 누구나 환영함(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

- 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삼무중학교(운천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 부음**
- ▲김장희씨 별세 태화(경기도시공사)·경아(세종병원)씨 부친상=발인 2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삼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101호 故 권순자 님(여/63세) 子/子婦: 권민식/김경자, 권민희/박금희 女: 권영희 *발인: 7월 29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 故 이영중 님(남/77세) 무연고 *발인: 7월 29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201호 故 허석영 님(남/52세) 子/子婦: 허광민 女: 허영민 未亡人: 김경호 *발인: 7월 28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402호 故 박선애 님(여/82세) 子/子婦: 송원영/이정숙, 송원호 女/婿: 송은영, 송영욱, 송경희/임동권 *발인: 7월 28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孝 金 浩 宗 禮 式 堂 http://www.mykumho.com	
문 의 (062)227-4000	